

월요광장

부르지 못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오늘 35주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없다고 합니다. “5월이, 기일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행사도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왜 못 부르게 하는가. 유족이 위로가 될 만한 행사를 해야겠다. 이 나라는 지금까지도 똑같다.” 80년 5월, 도정을 사수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돌아간 광주상고 1학년 문제학군의 아버지 문건양 씨 말씀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월 유족들과 시민들이 80년 5월을 추모할 때마다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광주를 지키다 돌아가신 임들을 위한 행진곡이면서, 80년 5월 세상의 고품 속에서 뜨거운 연대로 폭력에 맞선 시민들이 ‘대동세상’을 기리는 노래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뒤, 정부 주관 첫 기념식이 열린 2003년부터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까지 기념식

에서 제정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등장하면서 느닷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론을 분열시키는 세력은 누구인가요. 2013년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된 점이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기념식에서 제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론을 분열시키고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 누구인지 자명합니다. 보훈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말한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1991년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배경음악으로 사용됨으로 인해 노래 제목과 가사 내용인 ‘임과 새날’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야기됐다”고 한 것입니다. 보수는 꽤 지만일 씨나 일부 종편이 ‘복면 쓴 사람이 북한 특수부대’라고 왜곡하는 등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훈처가 북한 운운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그 분열의 수단으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5·18에 대한 공감을 바라긴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만들어온 최소의 합의는, 5·18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최소한 존중을 하거나, 혹은 명시적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단 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부러워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5·18 민주화운동 덕분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은 5·18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도 최소 합의해온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새 유행하는 조롱과 비하는 그런 최소한의 합의와 공감대 자체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할 만합니다. ‘새로운 금지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에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이유’가 걸려있다. 프랑스 혁명에 참여한 마르세이유의용군을 위해 공병 대위 루제 드 릴이 하룻 밤에 작곡한 이 노래는 혁명전선에서 널리 불리다가 1795년 프랑스의 정식 국가가 됐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뒤 “폭군을 쓰러뜨리자”는 가사를 이유로 ‘라 마르세이유’를 금지곡으로 만들었지만 1830년 7월 혁명 이후 다시 국가로 인정됐습니다.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후퇴해선 안 되고, 전제정치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지요. 지난해 광주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한 아르헨티나 EATIP의 에델만 박사는 광주항쟁 유족과 생존자들이 5·18민주화운

동 기념식 때 불러왔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트라우마 치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래는 이들의 삶을 대변하는 의미가 있다. 기념하는 노래를 막는 것은 치유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노래를 불러야 치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기념이나 추모는 희생자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념하고 추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곡하는 것, 침묵하게 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집단 트라우마의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외상을 입게 하는 일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누가 그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 마르세이유’처럼 지우려고 하면 더 찬란히 빛나는 그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봅시다. 80년 5월 도청에서 자식 잃은 문건양 아버님의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청 앞 분수대에서 부르는 우리의 노래가 온 나라를 울리도록 함께 부르며 좋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남겨/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지 산자여 따라라/ 앞서서 나가지 산자여 따라라”

社說

올해도 5·18 ‘반쪽 기념식’ 광주는 참담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곳곳에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됐다. 이날 오전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주관으로 추모제가 거행됐으며 이어 망월동 구 묘역에선 유족들과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의 참여 속에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오후에는 금남로 일대에서 ‘오월, 민주, 인권, 환경, 통일’ 등 5가지 주제로 3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민 난장’이 펼쳐졌다. 또 1980년 민족민주화쟁이를 재현하는 광주시민 대성회와 민주대행진, 35주년을 기념하는 전야제가 잇따라 거행됐다. 하지만 올해도 5·18 기념식이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제창 거부로 파문을 빚게 됐다. 5·18 행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반발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국가보훈처 주관의 기념식에 불참하는 대신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별도

의 기념식을 치르기로 한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5·18 기념식은 이명박 정권 다음해인 2009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제대로 된 행사를 치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2년 전 국회에서 기념곡 지정 결의안까지 채택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다. 5·18에 대한 역사적 애곡과 폄훼도 심각하다. 일각에서는 5·18을 폭력시대와 폭동으로 보는 시선도 여전히 있다. 광주시민들로서는 참담한 심경뿐이다. 하지만 이 땅에 민주화의 초석을 이뤘던 그 숭고한 정신과 이념은 결코 뒤워지지 않을 것이다.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흥하고, 망각하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단순히 35년 전에 한 번 일어났다가 그냥 사라진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 숨 쉬면서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에 민주적 가치로 승화될 것이다.

치매 환자에 희망...광역치매센터 전남 유치

전남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38만 3000명인데 이중 10.9%인 4만2000여 명이 치매 치료를 받고 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지난 2011년 3만6000명에서 2012년 3만8000명, 2013년 4만 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2000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대부분은 국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처지다. 정부가 지원하는 요양시설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환자는 10명 중 3명에도 못 미친다. 환자의 수발은 대개 배우자나 자식 등 가족들에게 맡겨진 상황이다. 따라서 치매는 환자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비극이다. 24시간 간병에 따른 경제적·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혼과 동반 자살 같은 가장 파탄을 부르는 일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민선 6기 공약인 ‘광역치매센터’ 유치가 성공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올해 광역치매

센터 공모에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지자체’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치매관리 사업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할 치매관리 컨트를 타워가 순천 성가톨릭병원에서 설치된다. 광역치매센터는 총 9억7000만 원의 사업비 중 국비 6억8000만 원과 도비 2억9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앞으로 전남도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 관리사업을 기획하고 교육 사업을 통해 치매 치료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 훈련 등을 추진하며 치매 전문가 및 케어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게 된다. 또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담당자 교육과 사업 지침을 개발하고 치매 관련 시설의 기술 지원도 한다. 전남도의 광역치매센터 유치는 치매 환자들이 그 가족들에 더할 수 없는 희망이다. 치매센터가 앞으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치매 재앙’에 대처할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법조칼럼

조직문화와 인권, 평화



박승일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인권과 평화의 축제 광주 U대회를 100일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홍보단 출정식을 마친 기관장들이 식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고급차들이 식당 주변을 가득 메웠다. 그런데 한 장애인인 차량을 가지고 그 식당을 찾았다. 자리가 없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1호차에 빼주기를 요구했는데 너무도 당당하게 거절당했다. 그 분이 언제 나오실지 몰라서 자리를 못 개 마련이다. 방금 들어간 양반이 언제 나오지 모른다니? 미안하다면서 비켜줄 것을 기대한 바림과는 달리 장애인은 결국 다른 식당으로 가야 했다.

아마도 해당 기관장은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기관장의 장애인차량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평소 소탈한 의견을 강조하는 그분의 성향을 감안하면, 알았다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인 요구하기 전에 자리를 내주었으리라 생각된다. 그 분야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을 몰랐다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주 있을 터인데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가 더 궁금하다. 여전히 반쪽 가능성이 없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원래 기관장이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울 때면 대개 하는 이들은 일단 모시는 기관장의 서열에 따라 식당에서 가까운 순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 암묵적인 관행이자 의견의 기본이다. 한번 정한 주차 위치는 주변이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변동을 없게 마련이다. 그러나 때 마침 그 자리에 숙음이 식사하러 간 장애인의 잘못된길. 제아무리 교육을 시켜보라. 기관장의 주차에 직접, 일자리가 걸린 이들은 좋은

자리를 내주기 쉽지 않다. 조직 문화가 그렇다. 여론을 의식하고 상황에 따라 자리를 내준 이보다 자리를 지킨 이를 칭찬할 터다. 조직 문화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압도하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도 징수 관청보다 삼급 기관장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특정 개인의 소위 수준에 대한 충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또 다른 문명은 이렇다. 어떤 산하기관에서 신규로 경력직 사람을 채용하는데, 내정자의 이력이 화려하다. 외국어 특기자다. 외국인 부인을 둘 정도로 해당 외국어를 정말 잘한다는 이유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기정사실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같이 일할 직원들의 표정이 썩어 들어간다. 일전에 그 기관에서 일한 경력직이 있는 직원이었지만 해당 외국어를 활용한 사례가 없었다. 해당국과 행사 진행할 때 사회 한 번 본적이 없고, 출장 가더라도 현지 교포들을 통역으로 이용했다. 그 잘한다는 외국어 관련된 일은 아예 하려고 하지 않아 번거료를 주고 외부

에 맡겨 문서를 작성하기 일쑤다. 주인 없는 곳에서는 편한 곳이 최고다. 채용기준을 맞추면 뭐 하나,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봐야한다. 스펙과 일하는 곳이 같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5·18 35주년에다, 5·18의 법적인 의미를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잘못된 국가권력, 왜곡된 권위주의에 항거하여 주권자로서 시민의 저항의식이 표현된 사건이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 따라 법과 제도가 얼마든지 잘못될 것일 수 있다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 하지만, 광주시민의 피와 눈물로 민주를 지키고 국가사회를 발전시킨 현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 법과 제도를 유습게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질서를 부정하는 이들과서 궁지에 몰릴 때면 대한민국의 법전과 인권을 들먹인다. 보편적인 인권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 기관장을 위한 좋은 자리일수록 장애인에게 양보했으면 좋겠다. 요구하거나 찾아오기 전에 먼저 자리를 비워줬으면 좋겠다. 이젠 U대회의 성공적 개최보다 중요한 가치다.

기고

5·18의 또 다른 이름은 ‘배려’입니다



박남인 광주시 교통건설국장

서른 다섯 번째 맞는 5·18이다. 1980년 5월은 광주라는 한 도시의 운명은 물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가 중 수십년째 짧은 기간에 이룩한 기적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토록 빠르게 정착된 결정적인 계기로 5·18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오월이 국민에게 던진 ‘국가권력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더불어 살아남은 자의 민주화에 대한 책임감이 87년 6월항쟁을 통해 마침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뿌

리내리게 했다. 필자는 독재권력에 대한 투쟁으로서의 오월 못지않게 중시되어야 할 점이 공권력 부재상황 속에서 광주시민이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만들어낸 자치공동체라고 생각한다. 이곳에 대한 배려의 정신 없이는 인류가 생존할 수는 있을지언정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권력이 부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배려의 정신으로 자율적인 질서를 세우고 완벽한 공동체를 실현해 낸 광주시민이다. 이런 위대한 전통을 가진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지적하는 개선점은 다름 아닌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교통문화’다. 민주·평화·인권의 도시 광주의 첫 인상이 낙후한 교통문화에서 판가름나고 있는 것이다. 올 5월 광주를 찾는 수많은 외지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오늘날 실제 광주의 교통문화는 어떠하냐? 한마디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전국 대도시 중에서 꼴찌수준이다. 도시별로 시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문화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2014 교통문화지수’ 평가결과만 봐도 광주시는 7대 특·광역시중 6위다. 더욱 부끄러운 점은 광

주시가 물리적인 교통안전시설 수준을 평가하는 ‘교통안전시설지수’에서는 거의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교통문화지수는 최하위권이라는 점이다. 전국 최고의 교통안전시설에도 최악의 교통문화지수를 보이고 있는 것이 광주 교통문화의 현주소인 것이다.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찾는 운전자들로부터 자주 듣게 되는 ‘광주에서는 운전하기가 겁이 날 정도’라는 말에서도 우리의 부끄러운 교통문화 자화상은 확인된다. 광주의 교통문화가 이처럼 낙후한 것은 자기중심적인 운전습관이나 보행행태가 만연해 됐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광주교통문화의 대혁신이 절실하다. 자기중심적인 교통문화로부터 ‘배려의 교통문화’로 바뀌내지 않고서는 광주는 살만한 공동체가 되기도 어렵고 존경받는 도시가 되기는 더욱 요원하다. 특히 올해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고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되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되는 등 ‘열린 광주’로 가는 원년이다. 우리의 교통문화가 바뀌지 않고서는 이런 열림의 기쁨이 광주의 좋은 이미지를 세계인에게 심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낙후한 교통문화를 드러내보이는 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80년 5월 배려정신의 실천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었던 광주시민들께서 지역의 교통문화에서도 배려를 실천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 우선 올해에는 ‘배려하는 교통문화’ 3대 안전수칙이라도 범시민적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첫째,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켜기’를 습관화했으면 한다. 둘째는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그리고 셋째는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 하기’의 생활화다. 방향지시등 켜기, 정지선 지키기, 무단횡단 안 하기 등 세 가지 교통안전수칙은 작은 배려의 마음만 갖는다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민족사의 커다란 물줄기마저 바뀌 온 광주시민이 생활교통문화조자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5·18의 또 다른 이름은 이곳에 대한 배려와 나눔이다. 교통현장에서 그들의 배려와 나눔 정신이 뿌리내리게 기대해 본다.

無等鼓

우리나라 종교인이 10년 전에 비해 4%포인트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 조사 때는 종교인의 비율이 54%였지만 지난해 4월 조사에서는 50%로 줄었다고 한다. 특히, 20대의 경우 종교를 믿는 비율이 10년 전에는 45%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1%로 줄었다. 30대 종교인 비율 역시 10년 전 49%에서 이번엔 38%로 감소했다. 젊은 층의 이탈이 종교인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된 셈이다.

이 아닌, 우리 결의 초능력자를 내세우고 있다. 지금이야 허무맹랑하지만, 이들 영화는 이미 수백만, 수천만 지구인에게 ‘인간적 가능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종교의 대응 논리는 분명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교황청 과학 회의에서 “과학은 비백(우주 대 폭발)을 세상의 기원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느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어벤져스

이 같은 추세는 할 리우드 SF 액션 블록버스터 ‘어벤져스’를 비롯해 강력한 힘을 지닌 ‘인간 또는 초능력자’ 등장하는 영화들이 최근 부쩍 인기몰이를 하는데서 어느 정도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이들 영화는 대부분 ‘외계의 공격으로 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구를 영웅들이 구해낸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단순한 구성이지만, 이들 영화는 인류사에 새로운 우주관이 출현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우선, 이들 영화는 그동안 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외계 또는 우주’를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내렸다. 또, 인류를 구원해줄 절대자로서 신

교황은 또 “하느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이 각자 내재한 규칙에 따라 진화하며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셨다”며 “창조물 자체가 진화한다는 것 역시(하느님이) 예상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만, 종교인이 감소하고 짝퉁신이 득세하는 현 상황 역시(하느님이) 예상한 일이지 않다.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과 종교의 공존’이나 ‘우주의 섭리’를 들먹이는 것은 코미디다. 하지만, ‘어벤져스’의 영웅들이 관객들에게 신과 우주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우주관을 전달해주는 메신저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홍형기 경제부장 redplan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